

민주 “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28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처리 하겠다” 공세 “거부권 행사 땀 민심 역풍... 레임덕 불러올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을 겨냥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외 공세의 화력을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이라며 “이는 의혹이 명백한 김건희 사건을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이원욱 총장의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의 총선이 ‘폭망’할 것”이라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 여사를 구명하려고 여권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불만과 자중지란이 일어 정권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아내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협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아내 사랑이 극진한들 이런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당시 여권으로부터 ‘이재명 방탄’ 프레임 공세를 당했던 민주당은 이제 역으로 ‘김건희 방탄’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방탄’으로 전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1호 영입인재인 박지혜 변호사를 향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총선 인재 영입 1호는 박지혜 변호사

기후 환경 전문가... “에너지 정책, 정치권서 근본적 변화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총선 ‘영입인재 1호’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지혜(45)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기후 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 최고의 경제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산업 체제도 기후변화에 맞춰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중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은 국민이 가슴 아파한 오송 지하차

도 침수 사태도 근본적 원인은 기후 위기”라며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보며 기후 변호사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장점 운영자의 딸로 태어난 박 변호사는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에 큰 흥미를 느껴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박 변호사는 스웨덴 유학에서 돌아와서는 환경 컨설팅사 에코프론티어 선임연구원으로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경영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컨설팅 업무를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홍익표 “비례대표 선출방식 이달내 확정”

민주당 원내대표 “위성정당 막을 환경 안돼... 병립형도 옵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이달 안으로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여러 선거 사무와 예비 후보자들을 고려했을 때 급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거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위성정당 출현 문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15일까지 합의되면 언제든 정개특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그런데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아예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원들과 당원들,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속의해야 할 것 같다”며 “아췌든 연말까지는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확정지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 비례제를 전제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선거제는 수적 우위로 관찰할 수 없는 만큼 병립형 논의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민주당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몇 석을 손해 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최소 5~10석은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불완전한 선거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향자 “3지대 빅텐트 가능성 배제 못해”

광주시의회서 회견... “광주·수도권, 다른 지역 출마 고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중 가장 먼저 창당한 한국희망의 양향자 국회의원은 11일 “정치소용돌이가 내년 3월 중순까지 간다. ‘빅텐트’(초당파 연합)는 막판에 가장 준비된 정당으로 세력이 부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정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3번’(제3지대)이 나오는 것이고 한국희망은 3번을 목표로 간다”고 밝혔다.

이웅섭 전 광주시장, 이상민 무소속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과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제3지대를 생각하는 많은 이들과 연대하면서 국민들의 열망과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다”며 “수도권부터 진영을 갖추고 움직이면 국민

들이 제3지대에 반응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희망은 내년 총선에 광주지역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의원이 현 지역구인 광주 서구에서 출마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양 의원은 “한 번도 서구에서 출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당 대표로서 당원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광주 또는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화성·이천·판교·평택·아산 등을 잇는 K첨단산업벨트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구 중심으로 후보를 준비하고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국민들이 제3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이유도 선택지를 늘려달라는 요구와 기대 때문이다”며 “어떤 정당보다 미래에 방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민주당 입당

“경제 정책 바로 잡겠다”

내년 총선 광주 동남을 출마가 예상되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11일 “경제·재정 전문가로서 국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경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의 주름살을 뽏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4년간 경제·재정 전문 공직자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것을 피력했다. 이어 ▲민생을 해결하는 ‘위민의 정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 ▲좋은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를 여는 ‘비전의 정치’ 등을 약속했다.

안 전 차관은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에 첫걸음을 내딛고 민주당의 가족이 됐다”며 “민주당의 기대에 부응해 경제 전문가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기를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나 기자 khn@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